

지역발전과 함께 세계 중심을 지향하는



WellTech
우석대학교

취임 100일 맞은 라종일 우석대학교 총장

라종일 우석대학교 총장이 지난 8월 9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라 총장은 이 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교세 확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에 열정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 총장은 지난 5월 2일 취임석상에서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방향에 대해 세 가지를 천명했다. 첫째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둘째는 구성원 모두가 합심·협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셋째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이 그것이다. 라 총장은 이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군에 제2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 및 대학 발전 연구회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국내 대학사회의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뉴 챌린지(New challenge) 계획을 마련,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라 총장의 이 같은 대학운영구상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큰 구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실질적 국제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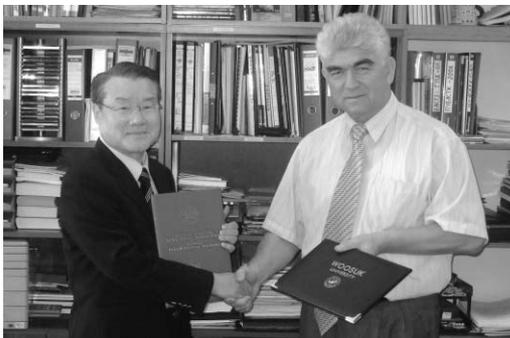
우석대는 미국 코넬대학교와 남가주대학 등의 방문으로 시작하여 중동국가,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의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최초로 중동지역에 눈길을 돌려 오만의 올림픽위원회(OOC)와 산파리 그룹, 마준대학(MC) 등과 교류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교류의 불모지인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석대의 블루오



[오만SG(산파리그룹)과 협약]



[OOC(오만 올림픽위원회)와 협약]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과 MOU 체결]

션전략으로, 국내 대학들에게 중동지역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와 함께 우석대의 외연 확장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지 대학을 비롯한 기업 등과 해외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라 총장 취임 전 12개국 43개 교류대학에서 14개국 51개 대학 및 기업으로 교류폭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현지대학을 방문,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협약체결을 남겨놓고 있는 대학이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 12개 대학에 이르고 있어 조만간 교류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 중에는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을 비롯해 중국의 베이징대학, 미국의 존 F 케네디대학, 코넬대학, 남가주대학, 일본의 소카대학, 레이타쿠대학 등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류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언적 의미의 교류협약보다 실질적 교류를 통해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교류대학에 자비 및 교환학생 등을 파견하고, 협약을 체결한 오만올림픽위원회에 태권도사범 파견, 중동국가 및 일본 현지기업에 인턴사원을 파견하는 일은 우석대의 해외 교류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과 교류협약 체결시 우석대에 입교하는 동포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 독지가를 직접 섭외하여 장학금혜택을 주기도 했다.

지역과 사회, 세계 파트너십 구축

우석대는 해외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류 확대를 통한 외연 확장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구상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교세 확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밑바탕을 두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우석대의 교세 확장은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역할과 지역사회발전의 성장동력을 해외에서 발굴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함께 이뤄 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교세 확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간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국내외 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물로 창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우석대는 국내 기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 권역의 CEO를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최고위 경영자과정으로 세계석학의 특별강연과 한국 차세대 지도자와의 공개토론 및 의견교류, CEO 교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우석대는 이 기회를 통해 대학의 입장을 아시아 CEO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 발족

우석대는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는 전라북도 경제활성화와 지역인재육성방안 등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대학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는 취지로 발족한 것이다.

▶ 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회는 앞으로 전라북도를 비롯한 기업,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첫째, 전북 4대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생명산업, RFT 및 신재



생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다양한 산학협력사업과제 발굴로 학생들의 커리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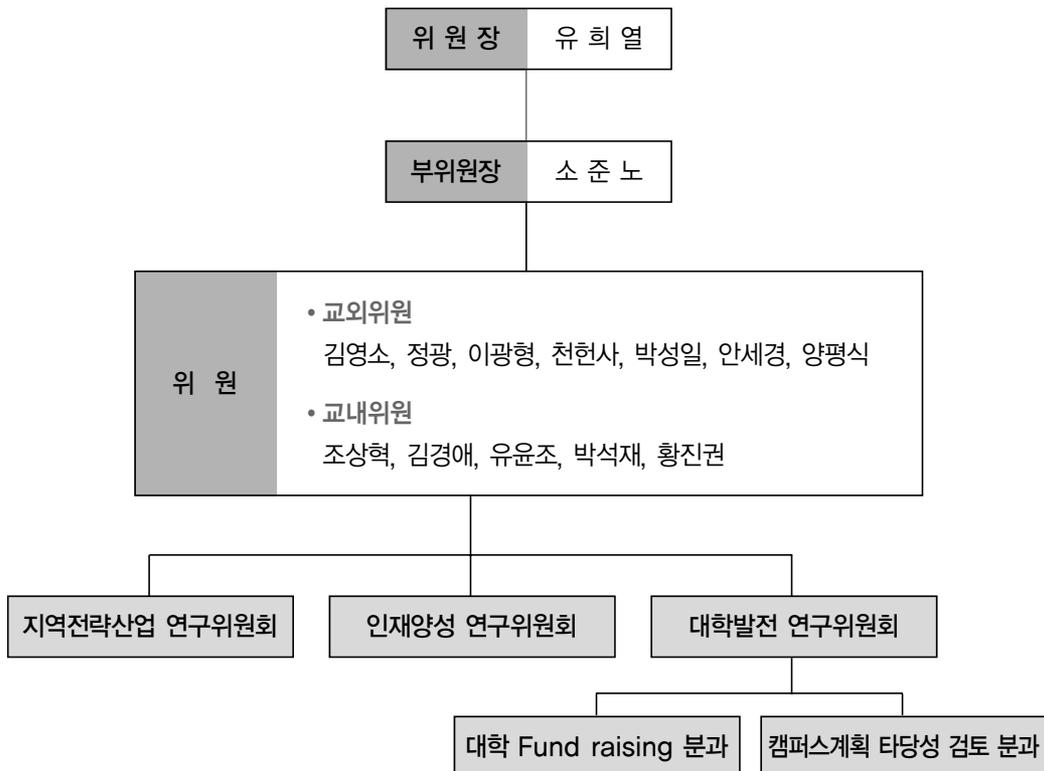
넷째, 대학과 전라북도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젊은이가 전북의 기업과 더불어 세계의 무대로 나아가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창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다섯째,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마련(Fund raising)방안 마련

여섯째, 우리 대학 캠퍼스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연구회 조직 및 위원구성

연구회는 앞으로 수행해 나갈 주요 과제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해외인사, 교내 교수 등 총 14인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지역전략산업 연구위원회, 인재양성 연구위원회, 대학발전 연구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었다.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 산하 소위원회와 분과는 사안과 과제에 따라 교내외 전문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는 전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우리학교 기획조정처장을 지낸 소준노(제약공학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밖에 연구회의 교외참여인사는 김영소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 겸 가톨릭대 석좌교수, 이광형 교육인적자원부 국장, 천헌사 제일 전북도민회장, 박성일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안세경 전주시 부시장, 양평식 전라북도 중소기업청장으로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내 참여교원으로는 조상혁 기획조정처장, 김경애 패션뷰티학과 교수, 유윤조 한의학과 교수, 박석재 유통통상학부 교수, 황진권 소방안전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 소위원회의 역할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는 산하에 지역전략산업 연구위원회, 인재양성 연구위원회, 대학발전 연구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소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전략산업 연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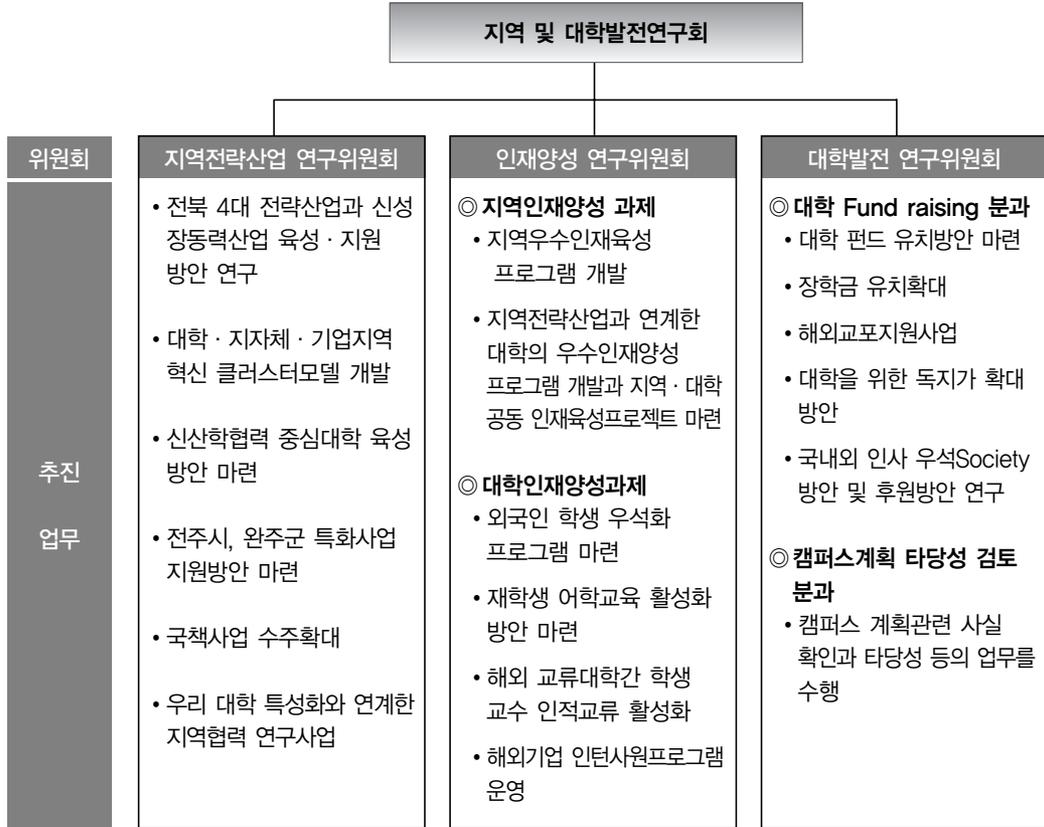
지역전략산업 연구위원회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안과제를 연구하고, 앞서 밝힌 전북 4대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지자체·기업 간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클러스터조성사업의 모델(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술지도, 창업지원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신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체제 구축, 지역대학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신산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조직의 개편, 대학특성화분야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고, 더불어 전주시와 완주군의 특화사업에 우리 대학이 참여하여 대학의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혁신사업 발굴을 통한 국책사업에 대한 수주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인재양성 연구위원회

인재양성 연구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전북도와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회이다. 낙후된 전북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R&D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대학 공동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이다. 해외 교류대학 간 학생·교수 인적교류와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사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 대학발전 연구위원회

대학발전 연구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발전의 기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내에 대학 펀드레이징(Fund raising) 분과와 캠퍼스계획 타당성 검토 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대학 펀드레이징 분과는 대학 펀드 유치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대학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우석대를 위한 독지가를 확대하고, 해외교포 지원 및 교류사업 마련, 국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석소사이어티(Society) 방안 및 사후관리 등을 연구하게 된다. 캠퍼스계획 타당성 검토 분과는 캠퍼스계획과 관련한 사실 확인과 타당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 산하 소위원회의 역할]

또한 지역 및 대학발전연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총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사안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했다.

앞으로 이 연구회가 첫 정기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과 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 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함께 나아가는 대학을 실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 인류의 공헌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천 제2 캠퍼스 조성

우석대는 충북 진천군에 분교형태의 제2 캠퍼스를 조성키로 하고 최근 관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2009년이면 개교 30주년을 맞는 우석대는 이를 계기로 제2 창학을 선언하며

대학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방침이다. 분교는 5만여 평의 부지에 10개 학과, 500명을 모집해 개교 4년 후에는 총 2,0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개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대학을 유치하려는 진천군과 제2 캠퍼스 조성을 통해 대학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대학 측의 의지가 강하여 사업추진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천군과의 협력]

우석대의 중장기발전계획(welltech WOOSUK2010+)에는 분교설립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러던 차에 지난 해 연말 즈음 진천군에서 대학유치 제의가 들어와 타당성 검토를 한 끝에 최근 조성결정을 내렸다. 중부권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진천지역 인근에는 오창산업단지와 BT관련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있고 13개 정부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고급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및 단지에 고급인력을 공급할 대학은 부족해 타당성의 한 근거로 삼았고,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작용했다.

분교는 2012년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워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고급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분교는 2012년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워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고급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 분교에는 어떤 학과를 두나?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기업체나 관공서 등 수요처를 면밀히 조사한 뒤 설치학과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대학원도 검토대상이다.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는 지적이 있다.

분교설립으로 발생할 500여 명의 학생수 감소는 정원 외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채울 예정이다. 오는 2010년이면 중국 등지에서 유학생 1,200명이 들어오는데 이는 분교설립으로 빠져 나간 500명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은 숫자로 이에 따라 대학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개 캠퍼스 운영에 따라 경쟁력은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선 전북 완주캠퍼스는 5개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글로벌캠퍼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분교형태의 충북 진천캠퍼스는 BT관련 최첨단 유망학과를 설치, 우수인재를 공급할 방침이다.

• 법적·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대학 위치변경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고 나면, 대학을 유치하려는 진천군으로부터는 우선 부지매입에 따른 협조를 받게 되고, 부지가 결정되면 캠퍼스 안팎의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과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진천군에서는 그 밖에도 개교할 때까지 크고 작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분교 주변 대학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우리 대학은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라는 블루오션전략의 플러스섬 게임으로 경쟁대학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즉, 경쟁대학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학과를 설치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방침이다.

New challenge 점화

라 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우석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석대학교 뉴 챌린지(New challenge)' 가 그것인데, 이는 교육시장의 개방과 급변하는 교육정책,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요변화, 대학간 경쟁심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1단계 :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우석

우석대는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신입생 비율을 확대해 나가며, 특성화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업교육체계화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단계 :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우석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새만금지구 개발 및 무주태권도공원 조성과 중앙정부 부처별 사업에 대한 총체적 파악 및 과제 발굴에 참여하는 등 전라북도와 함께 하는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지원사업 및 지역발전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대학지원



[미래를 위한 준비 '뉴 챌린지' 설명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우석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단, 스포츠 자원봉사단, 의료지원봉사단 등 지역봉사활동을 강화하고 도서관·문화관·평생교육관, 스포츠시설 등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며, 일반인의 사문서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사문서 보존사업, 그리고 문화 예술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펼쳐 나갈 방침이다.

• 3단계 : 세계로 나가는 우석

캠퍼스에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을 설치해 영어를 생활화하고 매너, 언어, 경영기초, 전공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인턴십 아카데미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시아권 기업체 CEO와 중국의 베이징대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아시아권 주요 대학과 공동 CEO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 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화를 효율적으로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연간 본교의 내외국인 학생 200명을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교류대학 간 교환학생 150명을 파견하며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국내외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우석프렌즈클럽(Friend's club)을, 해외 교포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캠프,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강화, 한국학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석프렌드(Friend)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제도인 우석파트너십 챔프프로그램과 외국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우석 J-Belt 구축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뉴 챌린지(New challenge)는 마지막으로 대학발전기금 확충과 연구비 수주 및 수익사업, 민간 기업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크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석대는 앞으로 지역거점 실무교육형 대학으로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전해 나가기로 했다.